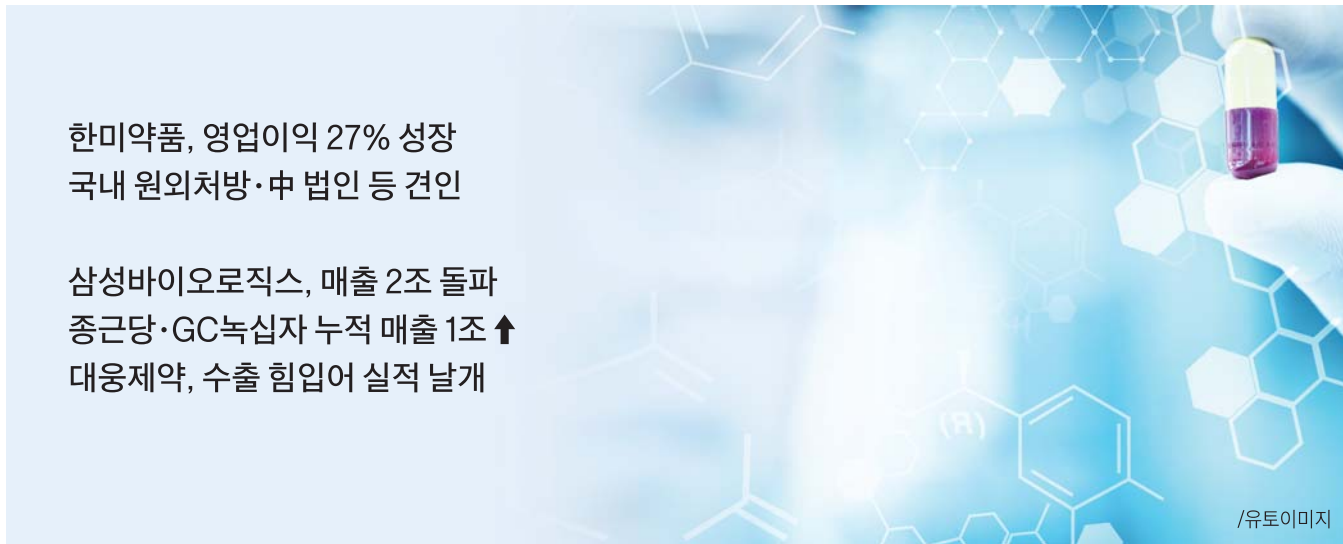


제약·바이오社, 3분기 실적 대박... 작년 실적 벌써 '훌쩍'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도 3분기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잇달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만에 매출액이 이미 2조원을 넘어섰고, 대형 제약사들도 3분기만에 실적이 1조원을 훌쩍 넘기며 연간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

한미약품은 1일 공시를 통해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9803억원을 기록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3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3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늘어났다. 당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468억원, 3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11.5% 각각 성장했다. 연구개발(R&D)에는 매출의 13.3%에 해당하는 453억원을 투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해외 유입 기술료 등을 제외한 매출 실적에서 분기 3400억원 돌파는 창사 이래 최초"라며 "우수한 제품력 기반의 국내 원외처방 매출 호조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폭



한미약품, 영업이익 27% 성장
국내 원외처방·中 법인 등 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 2조 돌파
종근당·GC녹십자 누적 매출 1조 ↑
대웅제약, 수출 힘입어 실적 날개

발적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북경한미약품은 3분기 매출액 930억원과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3.4%, 25.5% 각각 늘며 실적을 견인했다.

종근당 역시 주요 의약품들의 판매 호조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분기 만에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종근당

은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늘어났다고 밝혔다. 3분기 별도 매출액은 3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97억원으로 7.1% 증가했다.

GC녹십자 역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조29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났다.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기 대비 18.4% 늘어난 103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3분기 매출액은 4597억원, 영업이익 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31.8%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백신 유통 매출이 반영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쓴데 따른 기저효과다.

대웅제약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이 30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며 분기 매출액 300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6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분기 매출액이 3000억원을 경신한 것은 사상 최초"라며 "지난 7월 출시된 신약 펙수클루를 비롯한 고수익 품목 중심의 성장, 보툴리눔 독소 나보타의 수출 확대 및 우호적 환율 효과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만에 누적 매출액이 2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연결 기준 2조3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1.17%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4.23% 폭증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누적 매출 1조6896억원을 달성, 지난 해 연간 매출액(1조568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일양약품, 실적개선... 차입금 규모 축소

10년來 가장 적은 830억대 실적 확대, 지속 차입금 상환

일양약품이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일 현재, 일양약품 차입금 규모는 약 830억대로 10여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이는 실적 확대로 풍부해진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차입금 상환에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기차입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로 나선 결과, 전년 말과 비교해 약 173억원(6월말 기준)을 축소했으며 부채비율 또한 전년대비 11% 낮춰 71%대를 낮추었다.

지난 해 일양약품은 항궤양제 신약 '놀텍'과 '슈펙트' 및 '백신' 등의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 매출인 3713억원(연결 재무제표)을 기록했으며, 약 410억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260억원 등을 기록해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

올해도 신약과 전문의약품, 일반의

약품 및 해외사업부와 건강사업부 등 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양약품은 지속적인 자체 실적 확대로 차입금 상환 재원에 대한 부담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실물경제 악화로 금융비용 절감과 차입금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균형 있는 경영성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 규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제일약품 당뇨병 치료제 2종 출시

제일약품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테네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과 '테네필플러스(성분명 테네리글립틴·메트포르민·사진)'를 출시해 당뇨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제일약품은 당뇨병 치료제인 '테네필'과 '테네필플러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테네필은 체내에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DPP-4 효소를 억제해 혈당을 낮춰주는 당뇨병 치료제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사용된다.

테네필의 주요 성분인 테네리글립틴은 제2형 당뇨병 치료 약물인 DPP-4 억제제 중 하나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이세경 기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항암 항체치료제 개발 나서

이온셀 등 3곳과 공동개발 MOU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지난날 27일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온셀·한림대학교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와 항암 항체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는 각 기관의 핵심기술과 보유역량을 통합하고 항암 전문 산학연 병(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공동 R&D 협력 관계 구축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림대춘천성심병

원이 보유한 난치성 질환 분야의 우수한 임상 인프라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 연구원의 항암 항체치료제 보유기술, 이온셀의 항암 면역치료제 보유기술, 한림대학교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의 암 중개연구 전임상 플랫폼 등 각 기관의 핵심기술과 인프라가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으로, 향후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를 활용한 항암치료제 개발 및 이중항체·항체약물접합체 등을 이용해 암 치료에 적용이 가능한 완전인간 항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오에스피 반려동물 탈수예방 물질 특허 취득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제조업체 오에스피(OSP)는 반려동물 탈수 예방을 위한 전해질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식 특허명칭은 '전해질 비타민 아미노산 및 당류를 포함하는 동물의 탈수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이다.

해당 물질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전해질, 비타민, 아미노산 및 당류를 빠르

게 공급해 탈수현상이 발생한 반려동물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탈수를 예방한다.

반려동물은 음식을 통해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체액 불균형으로 탈수 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요로결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수분보충이 필수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HK이노엔 송근석 전무(맨 앞줄 왼쪽)와 셀인셀즈 조재진 대표(맨 앞줄 오른쪽)가 지난 1일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치료제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뒤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K이노엔, '오가노이드 치료제' 만든다

셀인셀즈와 위탁생산 계약

HK이노엔이 세포유전자치료제 전용 생산시설에서 '오가노이드(Organoid·장기유사체) 치료제'를 처음 생산한다.

HK이노엔은 지난 1일 바이오기업 셀인셀즈와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치료제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HK이노엔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센터가 맡은 첫 위탁생산 계약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은 셀인

셀즈가 개발 중인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에 HK이노엔과 계약을 체결한 셀인셀즈는 2014년에 설립된 첨단 세포·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피부재생, 골 관절염, 혈관 생성 등 다양한 질환의 재생치료제를 목표로 하는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한미사이언스, 한미헬스케어와 합병 완료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일 이사회에서 관계사 한미헬스케어와의 합병 종료를 의결하고, 2일 이 내용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알렸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 23일 이사회에서 한미헬스케어와의 소규모 합병 추진을 결의한 후 한미헬스케어 전 사업 부문 및 인력 등을 합병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1일 이사회 의결로 모든 합병 절차를 끝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합병을 통해 한미헬스케어의 핵심사업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게 됐

다. 한미사이언스는 ▲식품 ▲의료기기 ▲IT솔루션 ▲컨슈머플랫폼 등 한미헬스케어의 4대 영역 사업 고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리딩하고, 지주회사로서 그룹사 관리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합병이 이뤄졌다"며 "지주회사로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